

2/5(토) 레위기 25-27장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에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수고, 노력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방당하는 가나안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과 땅, 피조세계 모두가 윤택해지는 법입니다.

가난한 자나 넉넉한 자나 공존하며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세대의 착취와 궁핍, 실수와 황폐함이 대물림 되지 않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 법입니다(25장).

하나님은 때마다, 어김없이, 필요대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는 법에 담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땅과 인생을 개척하려는 자는

곧 질병과 죽음, 굶주림, 원수들과 황폐함을 만날 것입니다(26장).

하나님은 뜻을 거스를 백성들에까지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26:40-42).

복된 경로를 이탈한 자들을 훈육하여 돌아키실 것입니다(신8:5, 잠3:11-12).

돌아온 자들 역시 <순종과 불순종>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짐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최선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곧,

선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27장).

하나님이 각 법을 주신 의도와 그 결과들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며 통독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선물>임을 믿습니까?

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져올 건강함과 윤택함을 믿습니까?

② 나는 믿음으로 각 명령을 새기며 실천하고 있습니까?